매일 만나

2022. 3.

삼하 22~ 24장, 갈 1~6장, 왕상 1~4장

원주중부교회 큐티집

"QT 매일 만나" 는

Quiet Time 의 첫글자인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입니다.

매일 만나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 늘 동행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이름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교제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03
MARCH

SUN	MON	TUE	WED
		1	2
6	7	8	9
13	14	15	16
20	21	22	23
27	28	29	30

	THU	FRI	SAT
	3 음 2.1	4	5
	10	11	12
	17 음 2.15	18	19
	24	25	26
	31		

행복하게 하는 복음

〈응답받는 기도〉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애쉴리 타운이라는
큰 고아원을 세워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고아원의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려야 하므로 고아원은 온통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뛰어와서 "목사님 목사님, 큰일났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동에도 보일러가 고장나서 아이들이 다 얼어죽게 되었습니다" 하며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뮬러 목사님은 일어나 성경책을 옆구리에 낀 채
교회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 했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
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은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 "

조지 뮬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동안,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전체가 봄 날씨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기상 이변도 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북풍을 중지시키고
동남풍을 불게 해서 영국 전체가 온실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보일러를 수리한 후 정상적으로 가동하자
다시 한 겨울의 세찬 바람이 쌩쌩 불어왔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4:6)

Holy Bible survey

갈라디아서

김요한 목사

루터는 정경 중 갈라디아서를 으뜸으로 꼽았으며,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의 구호”, 또는“종교적 자유의 대헌장”, 또는 “기독교 독립선언” 등으로 불리어왔다. 그뿐 아니라 갈라디아서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와 함께 바울서신 중에서 매우 중요한 서신이다. 이 서신은 바울신학의 주요 주제들을(예를 들면, 이신칭의, 율법, 성령 등)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기독교 사상과 신학에 지대한 공헌과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회심과 삶에 대한 자전적 기록을 포함하고 있어 바울의 복음의 기원과 생애에 대한 일차적인 정보와 초대 기독교의 성격과 바울 기독교의 신학적 기초에 대한 귀한 자료들을 제공한다. 또한, 초대 기독교 내부의 논쟁에 (예를 들면 이방인의 구원, 할례, 교제) 대해 기록하고 있다.

1. 저자-수신자

갈라디아서는 전형적인 바울 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갈 1:1에서도 저자 스스로가 바울이라고 알려 준다. 또한, 서신의 결론 부분에서도 자신의 친필을 말하고 있으며(6:11 이하), 서신의 내용에서도 바울은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들과 개인적인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즉 자신의 자전적인 기록(1:13-17)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다메섹에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부름과 소명(1:18-19)사건,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과 베드로와 야고보 두 사도와의 만남, 그리고 자신의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기록한 것(2:1-10)과, 이어서 안디옥 식탁 교제(2:11-16)에서 보여 주듯이 베드로의 책망, 그리고 바울 자신만의 신학적 주장과 그를 뒷받침 하는 성경인용 등은 바울의 독특성을 말해준다. 그러나 6:11-18의 결론 부분에서는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필사자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필사자는 ‘함께 있는 동료’ 중의 하나로 그의 개인적인 동료로 보는 것이 가능성이 높다.

갈라디아서 수신자들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1:2)과 “어리석은 갈라디아인”(3:1)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갈라디아의 수신자 문제는 곧 갈라디아서의 기록연대와도 연관되어 갈라디아 교회들이 정확하게 어느 곳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가에 관해서는 학자들 간에 견해차가 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옛 갈라디아 지역의 주민들에게 보냈는지 아니면 로마의 갈라디아 행정구역의 주민들에게 보냈는지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므로 결정하기는 어렵다.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를 밝히는 일은 바울의 연대기와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지만 그것이 갈라디아서를 해석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으며, 어떤 설을 선호하든 편지의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바울이 로마의 갈라디아 행정구역의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상황배경

갈라디아서의 수신자가 되는 갈라디아 교회는 서신의 저자인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여 직접 세운 교회이다. 갈라디아 교회는 구성원으로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함께 존재했다. 그리고 구성 비율을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들은 바울과 복음을 환영하였다(4:13-15). 이런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다른 서신과 다르게 이 문제를 안부 없이 먼저 거론하며 써 내려갈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대적자)에 의해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다(갈 1:6, 7). 이것은 바울이 이상하게 여긴다고 할 만큼 매우 심각하며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문제로 보인다.

이런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위기 상황에 빠진 것일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갈라디아서의 문맥과 상황 바울의 메시지를 종합하면 외부에서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의 대적자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의 복음에 할례의 행위가 더하여져야 한다고 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에게 할례를 통해 이방 문화에서 거리를 두려고 했다(갈 4:29; 5:11; 6:12-13).126). 즉, 대적자들의 문화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요했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자신들)처럼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 방법으로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였다(갈 6:12). 이런 사상의 주장하는 몇몇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입되어 공동체 신앙을 흔들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3. 구조

Ⅰ. 서론(1:1-9)
  A. 인사말(1:1-5)
  B. 서신의 용무(1:6-9)
Ⅱ. 바울의 메시지 중 그의 개인적인 주장(1:10-2:21)
  A. 자신의 독립성에 대한 선언(1:10-12)
  B. 자신의 독립성에 대한 제시(1:13-2:21)
    1. 인간적인 가르침으로부터(1:13-17)
    2. 주된 교회들로부터(1:18-24)
    3. 예루살렘 기둥들로부터(2:1-10)
    4. 사도 베드로로부터(2:11-21)
Ⅲ. 바울의 메시지 중 신학적 주장들(3:1-4:31)
  A. 논제 제시(3:1-5)
  B. 증거 제시(3:6-4:31)
    1. 구약성경으로부터(3:6-14)
    2. 언약으로부터(3:15-25)
    3. 아들 됨으로부터(3:26-4:20)
    4. 율법으로부터(4:21-31)
Ⅳ. 바울의 메시지 중 실천적 적용들(5:1-6:10)
  A. 논제(5:1)
  B. 적용들(5:2-6:10)
Ⅴ. 결론(6:11-18)

Holy Bible survey

열왕기서

이상호 목사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로 묶여져 있는 열왕기상 하는 역사적인 내러티브로서 다윗 왕 통치의 마지막 때로부터 여호야긴이 바벨론 감옥에서 출옥한 때까지를 역사적 배경으로 삼아 이스라엘 남북 왕국의 역사와 왕들의 업적과 실패를 조명하고 있다.

즉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의 고난과 역경, 회개의 필요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다. 또한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게 된 동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탈무드는 열왕기의 저자를 예레미야로 보지만 단정지을 수는 없다. 다만 기록연대는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여호야긴이 풀려난 이후부터 1차 포로 귀환 이전인 B.C.561~537년 경으로 볼 수 있다.

1. 기록목적

이스라엘 백성의 흥망성쇠는 외부적인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들의 신앙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따라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래서 열왕기에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모습이 반복하여 강조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며, 따라서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저자는 마지막 부분에서 회복의 소망을 주고 있다. 바벨론에 끌려 왔던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풀려나 여생을 편안하게 보냈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회복의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다.

2. 역사적 정황

앗수르와 바벨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열왕기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 40명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열왕기 저자는 그 왕들과 지도자들의 부패와 종교적 타락으로 두 왕국이 멸망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래도 차이점은 있다. 북 왕국은 왕조가 자주 바뀌어 9왕조가 통치하였지만, 남 왕국은 한 왕조가 모든 기간을 통치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악했지만, 남 왕국에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시야, 아사리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와 같이 좋은 평가를 받은 왕들이 있었다. 그들은 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으며,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이 산당까지 제거한 훌륭한 왕들도 있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시대부터는 장막보다는 산당에서 예배를 더 많이 드렸는데, 이런 전통을 없애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한 후 산헤립이 파견한 랍사게의 심리전으로 곤욕을 치렀고, 요시야는 산당을 건드린 후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살해당하였다.

그럼에도 열왕기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진 이후로 이스라엘의 모든 산당은 허물어져야 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은 백성들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징표가 되는 것이다.

4. 신학적 주제와 메시지

1)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은 열왕기의 신학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열왕기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를 보여준다. 이스라엘 왕들도 이 언약을 잘 지킬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왕국의 몰락은 이 의무를 잘 이행하지 못해서 일어났다고 회고하고 있다.

2) 회복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

다윗 언약에 들어 있는 영원성은 한 개인의 집안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적용된다. 열왕기는 다윗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는 것으로 기록한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도 여호와의 소망을 갈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언약 때문이다.

3) 심판과 회개

통일 왕국이 솔로몬 이후 분열된 것은 솔로몬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 한발 더 나아가 분열된 두 왕국이 멸망한 것도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런데 심판과 함께 강조되는 것은 회개이다. 회개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선하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자 하실 때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다.

5. 구조

1) 다윗의 쇠퇴와 솔로몬의 상승(왕상 1:1-2:46)
- 다윗의 쇠퇴(1:1-4)
- 아도니야의 즉위 시도(1:5-10)
- 솔로몬의 즉위(1:11-52)
- 다윗의 솔로몬 권면(2:1-9)
- 다윗의 죽음(2:10-12)
- 솔로몬의 정권 확보(2:13-46)

2) 솔로몬의 통치(3:1-11:43)
- 하나님의 나타나심(3:1-15)
- 지혜의 솔로몬(3:16-4:34)
- 솔로몬의 성전과 궁궐 건축(5:1-7:51)
- 성전 헌당(8:1-66)
- 하나님의 나타나심(9:1-9)
- 솔로몬이 추구한 것들(9:10-28)
-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10:1-29)
- 솔로몬의 몰락(11:1-43)

3) 분열 왕국과 우상숭배(12:1-16:34)
- 여로보암 집안의 등장과 퇴장(12:1-15:32)
- 오므리와 아합의 등장(15:33-16:34)
4) 엘리야의 사역(17:1-왕하 1:18)
- 엘리야와 바알 종교(17:1-18:46)
- 엘리야의 아합 비난(19:1-22:40)
- 엘리야의 최후의 날들(22:41-왕하 1:18)
5) 엘리사의 사역(왕하 2:1-13:25)
- 엘리사가 엘리야를 승계(2:1-3:27)
- 엘리사의 기적(4:1-6:23)
- 엘리사와 포위 된 사마리아(6:24-7:20)
- 엘리사의 정치적 영향(8:1-29)
- 예후의 이스라엘 정화(9:1-10:36)
- 아달랴와 여호야다(11:1-21)
- 요아스의 개혁(12:1-21)
- 여호아하스와 여호아스(13:1-13)
- 엘리사 최후의 날들(13:14-25)
6) 이스라엘의 몰락(14:1-17:41)
-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14:1-22)
- 잠시 동안의 부흥(14:23-15:7)
- 이스라엘의 정치적 소용돌이(15:8-31)
- 유다의 정치적 연약함(15:32-16:20)
- 이스라엘의 멸망(17:1-41)
7) 유다의 몰락(18:1-25:30)
- 히스기야의 의로운 통치(18:1-20:21)
- 므낫세와 아몬의 악한 통치(21:1-26)
- 요시야의 의로운 통치(22:1-23:30)
- 유다의 쇠퇴(23:31-24:20)
- 바벨론이 유다를 파괴함(25:1-26)
- 여호야긴 이야기(25:27-30)

01 화요일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사무엘하 22:32-51

새찬송가 543장

32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33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34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35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36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37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38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39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40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 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41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 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42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43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 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의 진흙 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44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45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함이여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46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47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48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49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 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50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51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말씀 암송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대상 29:13)

32-51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도움이시며, 유일하신 의지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며,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최종적으로 은혜와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6절의 온유함이란 굽어보심, 도움, 낮춤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공동된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높여주시며,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incarnation)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47절 다윗의 고백처럼 살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성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간섭하여 통치하십니다. 결코 그 택한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Q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영역입니까?

02 수요일

구원과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무엘하 23:1-7

새찬송가 430장

1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 하는 자가 말하노라
2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3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4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5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6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7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말씀 암송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행 3:25)

본문이해

1-7절 여호와의 영이 말씀하심이여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셔서 왕이 되게 하셨고, 은혜와 사랑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찬양하게 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은혜 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방향과 자세를 제시하는데,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길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적용질문

Q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03
목요일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사무엘하 23:8-17

새찬송가 455장

8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밧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팔백 명을 쳐죽였더라
9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의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이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돋우고
10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11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이매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12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13 또 삼십 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 쳤더라
14 그 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 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15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16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17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말씀 암송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삼상 12:23)

본문이해

8-17절 다윗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휘하에 있는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웅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결코 뒤로 물러나는 일이 없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참된 리더는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길에 더욱 전진하며 도전하는 이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투 중에 베들레헴 우물물, 자신의 고향의 우물물을 누가 마시게 해줄까?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곁에 있던 두 번째 세 용사가 자발적으로 일어나 블레셋 군대를 돌파하고 우물물을 구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름다운 충성이지만, 다윗에게는 큰 충격을 주고, 회개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자신의 부주의와 권력욕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 세 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 다윗은 이를 깨닫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적용질문

Q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키고, 이루고자 하는 결단과 그 실천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04 금요일

다윗의 용사들

사무엘하 23:18-39

새찬송가 315장

18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삼백 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19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20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죽였으며
21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22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23 삼십 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24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삼십 명 중의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25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26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익게스의 아들 이라와
27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므분내와
28 아호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래와
29 느도바 사람 바아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배의 아들 잇대와
30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아스 시냇가에 사는 힛대와
31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32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33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34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배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35 갈멜 사람 헤스래와 아랍 사람 바아래와
36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37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하래와
38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39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삼십칠 명이었더라

말씀 암송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118:6)

본문이해

18-23절 생명바쳐 일합시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창을 들어 삼백 인을 죽이는 용사입니다. 또한 브나야는 눈 오는 날 함정에 내려가 굶주린 사자를 죽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고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함정으로 내려가 생명 바쳐 일하는 모습입니다. 눈 속에서 먹이를 찾지 못해 사나워진 맹수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브나야는 다윗에게 충성 할뿐만 아니라 다윗 이후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오르는 일에도 일조하였습니다(왕상1:38-39). 다윗이 나이 많아 임종을 바라보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 다윗 왕위를 계승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브나야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등과 더불어 솔로몬을 왕위에 등극하게 하였습니다. 다윗, 솔로몬에게 충성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충성한 것입니다.

24-39절 두루 충성합시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 그를 돕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고루 등용했을 뿐만이 아니라 암몬, 아랍, 헷 사람 등 이방인까지도 함께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지역의 사람만 택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기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전3:11).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갈망은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만 택함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택함을 받고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은사를 소유한 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은사 소유자도 택함 받아 직임을 다 하도록 하십니다.

적용질문

Q 자꾸 자기를 들어내려고 할 때 마다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05 토요일

다윗의 인구 조사

사무엘하 24:1-9

새찬송가 424장

1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2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3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 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4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5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6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홋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7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8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9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팔십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오십만 명이었더라

말씀 암송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1:5)

본문이해

1-9절 깨어 있는 삶을 삽시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후에는 자만과 나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합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함으로 다시 믿음 가운데에 서지만 이번에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는 단순히 인구수를 알기 위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20-60세의 남자 수를 조사하여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 때는 그들의 여행과 숙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성전세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반 세겔의 성전세를 내어야 했기에 성전운영을 위해서 필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사적 목적으로 유사시에 군사력으로 전환 할 수 있는 백성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려고 하는 경우가 이 세 번째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인의 수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과 열방에 자랑하여 자기를 과시하려는 교만이 그 안에는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는 사단에 의해 계획된 일로서(대상21:1-), 이곳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삼하24:1), 다윗의 마음이 교만하고 강퍅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표현입니다.

적용질문

Q 한순간 나에게 찾아오는 교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06 주일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사무엘하 24:10-25

새찬송가 90장

10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11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2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13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칠 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14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5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칠만 명이라
16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17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18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19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20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21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22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땔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 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23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24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오십 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25 그 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말씀 암송 그 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삼하24:25)

12-15절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갓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세 가지의 재앙 중 택하라는 것입니다. ①칠 년 기근 ②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 ③사흘 동안 전염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의 선택을 위임받았던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품보다 더 나은 피난처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에 의해 시행되는 징벌인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택합니다. 전쟁의 재앙은 대적의 손에 죽는 것이며, 기근의 재앙은 흉작을 유발하여 사회를 피폐시키는데, 전염병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형벌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숫자가 칠만 명이나 됩니다. 다윗이 의지하려고 했던 인간의 숫자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히 원인을 제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Q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07 월요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갈리디아서 1:1-10

새찬송가 520장

1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2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3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4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5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6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 암송 죄인은 백 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전도서8:12)

6-9절 복음을 변질시키지 맙시다

본문이해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함으로써 바울은 다른 복음이 없음을 말씀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됨을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이란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따라 구원받는 길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변질시키며,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단의 역사로 볼 수 있기에 저주를 받습니다. 이는 영혼과 육신과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따르게 됨을 의미입니다. 하늘의 천사도 다른 복음을 전하고 믿는다면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외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아서 많은 사람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기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질문

Q 혹시 주변에 다른 복음으로 현혹하는 일이 없나요? 복음을 통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갑시다.

08 화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1:11-24

새찬송가 260장

1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13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14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으나
15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16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 또 나보다 먼저 사도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18 그 후 삼 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십오 일을 머무는 동안
19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20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21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22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23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24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말씀 암송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갈 1:12)

본문이해

11-17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된 것이며, 자신 역시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택정받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13-14절에서 언급한 바울이 이전에 교회를 핍박한 것,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자신의 깨우침이나 노력으로 얻어내지 않음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18-24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회심 이후 예루살렘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만나 자신이 회심한 것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강조합니다. 사도들에게 자신의 회심의 진정성을 확인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식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의 교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때 교회의 핍박자이던 바울이 회심하고 전도자가 된 것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강조하는 것은 바울이라는 유력자가 예수님을 믿은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말미암는다는 것과 하나님과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적용질문

Q 우리는 복음을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09 수요일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갈라디아서 2:1-10

새찬송가 438장

1 십사 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2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달음질하는 것이나 달음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3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4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5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6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7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8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9 또 기둥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10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말씀 암송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달음질하는 것이나 달음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갈 2:2)

본문이해

1-10절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은 전반부인 2:1-10은 바울이 자신의 복음과 사도직을 변호하는 앞 맥락에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의 회합을 다룹니다. 여기에서 다룬 문제는 전통적으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의 회의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두 본문의 기록이 차이가 난다는 주장이 있지만, 동일한 사건을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묘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안디옥 교회의 할례 논쟁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 일부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2:4).

오랜 토의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이 고넬료 가정 방문을 상기시키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행15:10)'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율법 아래에 두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행15:11)'로 선언하고, 야고보도 구약예언의 성취를 밝히면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멍에를 메우는 것을 거부하며 할례와 율법 없는 복음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이 회의는 할례 문제 즉 이방인이라도 할례나 율법의 조건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확정 지은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며, 유대교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인종과 종족을 초월하는 본격적인 이방 선교가 시작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적용질문

Q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

10 목요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11-21

새찬송가 357장

11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12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3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4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15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7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8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19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말씀 암송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갈 2:16)

본문이해

11-14절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예루살렘 이후 베드로는 안디옥을 방문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선 3:28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는 복음의 진리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귀중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수적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식탁 교제를 기피합니다. 베드로 자신은 그들과 식사하는 것이 거리낌이 없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격인 베드로기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식사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의식에서는 낯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에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대로 일관성 있게 행동하지 않은 베드로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15-21절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 회의에서 합의한 복음의 진리를 재천명합니다. 이로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마음 속에 있던 율법에 대한 신뢰와 우월감 등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보여주는 곳은 16절입니다. 이 구절의 '율법의 행위'는 당시 유대인의 신분을 나타내 주는 신분 표시의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왜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갈3:6, 창15:6). 즉 하나님은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단 한 번도 율법을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적이 없고, 율법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모습을 삶에서 드러내기 위한 응답차원의 규범입니다.

적용질문

Q 하나님의 은혜가 내 내면에서 행하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11
금요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갈라디아서 3:1-14

새찬송가 380장

1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2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3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4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6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8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0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1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12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4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 암송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갈 3:11)

본문이해

1-5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먼저 바울은 1절에서 격앙된 감정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떠나 잘못된 길로 가려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증거하여 율법이 구원을 주지 못함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밝히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얻은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듣고 믿음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를 힘 입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을 말하고, 이는 곧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일어난 성령을 받음은 자신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했습니다.

6-14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바울은 이 사실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설명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6은 창세기 15:6을 인용한 것인데, 이신칭의의 원리를 뒷받침하는 증거 구절로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입니다(롬4:3, 22). 그리고 여기에서 '의로 정하셨다'는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는 의미로서 법정적인 간주의 문제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이로써 성경은 '우리의 의롭게 됨'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라고 합니다. 이는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올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질문

Q 왜 우리는 율법의 요구 앞에서 자주 흔들릴까요?

12
토요일

율법과 약속

갈라디아서 3:15-22

새찬송가 267장

15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16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17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18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19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하므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20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21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22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말씀 암송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엡 2:8)

본문이해

15-22절

본문은 율법과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모세의 율법보다 430년이나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의한 칭의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적용질문

Q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3 주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갈라디아서 3:23-29

새찬송가 546장

23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5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26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 암송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갈 3:24)

본문이해

23-25절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말하던 사도 바울은 드디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 곧 '파이다고고스'는 어린아이를 보호하거나 시중드는 사람을 뜻합니다. 당시에는 어린아이를 안전하게 학교에 데려다주는 일을 하는 노예가 있었는데, 이런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바로 이처럼 율법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26-29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도 상호 간에 예수와 더불어 하나가 되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의 약속을 상속받게 됩니다.

적용질문

Q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인지, 아니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함을 바라는 자인지, 생각해 봅시다.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14 월요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1-7

새찬송가 305장

1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3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4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말씀 암송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갈 4:4-5)

본문이해

1-7절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삶과 복음 아래에 있는 자들의 삶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어린 상속자는 유업을 이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후견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장성하여 성인이 되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회복하고 대신 후견인의 권리는 끝나게 됩니다.

이처럼 율법의 기능은 시간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으며,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는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적용질문

Q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5 화요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갈라디아서 4:8-20

새찬송가 268장

8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9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10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1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12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3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15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16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므로 원수가 되었느냐
17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18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19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20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말씀 암송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 4:19)

본문이해

8-11절

율법보다 복음의 우월성을 강조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율법주의자들의 꾐에 빠져 율법의 노예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12-20절

바울은 논리적인 문장으로 견책하던 것을 그치고, 이제 방법을 바꾸어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자신의 마음과 깊은 관심을 따뜻한 애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의 사랑을 상기시키고, 현재의 마음을 털어놓은 후 올바른 믿음을 가질 것을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적용질문

Q 바울처럼 깊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장과 사랑, 배려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16 수요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갈라디아서 4:21-5:1

새찬송가 417장

21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23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25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 하고
26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7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28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29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30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31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말씀 암송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5:1)

본문이해

21-23절 율법에 속한자와 복음에 속한자

바울은 먼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각각 계집종인 하갈과 자유인인 사라에게서 출생한 사실과 하갈의 아들은 육체를 따라, 사라의 아들은 약속에 따라 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21-23절)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에 속한 자와 복음에 속한 자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는 자기 의를 의존하며 살아가고, 복음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24-1절 종의 멍에를 매지말라

우리는 더 이상 이스마엘처럼 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삭처럼 자유한 아들에게 속한 자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는 쫓겨났고, 약속의 자녀는 그 유업을 잇는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이상 종의 멍에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안에서 주신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적용질문

Q 약속의 자녀로 받은 특권이 무엇입니까?

17
목요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2-15

새찬송가 312장

2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3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4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5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7 너희가 달음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8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9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10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11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12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13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14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5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말씀 암송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갈5:13)

본문이해

2-5절 할례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내에 스며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장은 잘못되었으며, 할례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라고 합니다. 만약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6-14절 율법의 규례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바울은 교회 내에 교모히 들어와 교회를 분열시키는 율법주의자를 경계하며 사랑을 강조합니다. 할례, 무할례나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적용질문

Q 나는 어떻게 사랑으로 종노릇하겠습니까?

18 금요일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16-26

새찬송가 190장

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
하리라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
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19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
과 이단과
21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
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말씀 암송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5:22)

본문이해

16-22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바울은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복음의 자유를 누릴 것을 권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자칫 방종한 생활을 조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안에 여전히 두 가지 욕망이 내재한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죠. 이 두 가지 욕망은 서로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4-26절 오직 성령으로 행하라

바울은 의롭게 된 삶의 원칙으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과 성령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삶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는 우리안에 거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는 매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적용질문

Q 오늘 하루 어떻게 성령으로 행하겠습니까?

19 토요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갈라디아서 6:1-5

새찬송가 257장

1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2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3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4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5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말씀 암송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갈6:1)

본문이해

1-5절 범죄한 형제들을 대하는 자세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성도를 대해야 하는 원칙에 대해 기록합니다. 공동체안에서도 언제든지 범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때 성경적 원리에 입각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첫째,신령한 자가 다른 형제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신령한 자가 그러한 자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며 날마다 자기를 못박는 사람입니다

둘째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를 대할 때 자기를 돌아볼 뿐 아니라 온유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온유하게 그를 일깨워야 합니다

셋째, 그 짐을 함께 지어야 합니다
범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 짐을 함께 해야 합니다. 공동체는 함께 짐을 지는 자세로 대할 때 범죄한 자를 온전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적용질문

Q 다른 사람의 죄와 연약함을 어떻게 품겠습니까?

20 주일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갈라디아서 6:6-10

새찬송가 218장

6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10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 암송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6:9)

본문이해

6절 모든 좋은 것

물질적인 선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코 영적인 선과 같지 않지만, 영적 선을 받은 사람이 그 복을 전해 준 이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헌금을 함으로써 감사를 표현하는 일은 적절하다 (눅10:7; 롬15:27; 고전9:11; 빌4:14-19)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이생에서 '심는'것(죄악된 육체를 만족시키는 삶 또는 성령을 기브시게 하는 삶)을 장차 올 시대에 '거둘'것이다('썩어질 것'또는 '영생'[8절]). 바울은 5:21에서와 같이,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고백이 합당한 행위와 짝을 이루어야 하며, 그 믿음이 합당한 행위를 통해 표현되어야 한다고 경고한다(5:6참조)

9절 우리가... 거두리라

장차 올 시대에 거둘 것이다. 고전15:58 참조. 신자가 지닌 확실한 소망이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동기가 되어야 한다.

10절 모든 이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바울은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요13:34)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전하라고 권면한다(마5:43-48)

적용질문

Q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받은 은혜와 감사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좋은 것을 함께 나눌 대상을 살펴보고, 실천해봅시다.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21
월요일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갈라디아서 갈 6:11-18

새찬송가 289장

11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12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13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1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5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16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7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18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암송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6:14)

본문이해

11절 큰 글자

강조하기 위한 표현. 하지만 일부 주석가는 4:15절을 문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 바울이 시력 약화를 겪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시점까지는 아마도 그가 불러 주는 대로 필사자가 받아 적었을 것이지만(롬16:22), 바울은 결론 부분을 손으로 직접 적고 있다(고전16:21; 골4:18; 살후3:17).

14절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형은 잘못된 인생의 수치스러운 종말로 간주되었다. 메시아의 구속 사역의 결과가 십자가였다는 사실은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었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음이었다(고전1:18-25). 그러나 바울에게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롬1:16)이었고, 따라서 그의 자랑과 기쁨의 대상이었다. ㅍ ㅍ

17절 예수의 흔적

노예가 주인의 낙인을 지니고 있듯이, 바울이 지닌 고통의 표지는 그가 그리스도의 종임을 말해준다(고후11:23-29 참조)

적용질문

Q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장소와 때를 생각해봅시다.

22
화요일

늙은 다윗과 왕이 되고자 하는 아도니야

열왕기상 1:1-10

새찬송가 390장

1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2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3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4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5 그 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오십 명을 준비하니
6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7 아도니야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8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야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9 아도니야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 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10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 암송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잠21:1)

본문이해

3절 수넴 여자

수넴은 모레산 근처 이스르엘 골짜기에 있는 잇사갈 지파의 성읍이었다(황하4:8; 수19:18)

5절 아도니야

생존해 있는 다윗의 아들 중 가장 나이가 많다. 그는 죽은 형 압살롬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스스로 높여서" 압살롬의 정치 공작(삼하15:1)을 흉내 낸 노골적인 조직 활동을 암시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승인 없이 왕을 자임하는 자들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9절 에느로겔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예루살렘 남쪽의 수원인 로겔 샘(2:37). 전통적으로 왕의 즉위는 샘 근처에서 공개적으로 거행된다(33, 38절)

적용질문

Q 내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나의 삶에 왕으로 다스리도록, 나의 주재권(Lordship)을 주님께 드립시다.

23
수요일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

열왕기상 1:11-31

새찬송가 431장

11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12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13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야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14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15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들었더라
16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17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18 이제 아도니야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19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20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21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22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23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24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야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25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야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야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26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27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이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28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29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30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31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말씀 암송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16:9)

11-31절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연로하여 통치를 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러 새로운 왕을 세워야 하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위기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봉착한 위기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었는지를 소개하는 이 장은, 위기 상황의 중심에 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갔던 사람들을 소개한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체가 나단 선지자였다. 그는 다윗의 아들 중에서 다윗 왕조를 이을 자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다(삼하7장).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 중에 가장 나라를 위해 합당한 인물이 누구인지에 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때가 되었을 때 다윗 왕 앞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추천했다.

29절 내 생명을 ... 구하신

다윗이 이전에 구원자이신 여호와께 호소한 일을 상기시키는 말(삼하4:9).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전통적인 맹세의 관용구(2:24; 17:1; 18:10; 왕하2:2,4,6; 4:30; 5:16,20 참조)

Q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24 목요일

솔로몬이 왕이 되다

열왕기상 1:32-53

새찬송가 357장

32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33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34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35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36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37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38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39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40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41 아도니야와 그와 함께 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42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야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43 요나단이 아도니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44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45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혼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 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46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47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48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49 아도니야와 함께 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50 아도니야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51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야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52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대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53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말씀 암송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왕상 1:48)

본문이해

32~40절 솔로몬 즉위식을 거행

아도니야의 음모를 알게 된 다윗은 자신의 충실한 신하들을 불러 즉각적으로 솔로몬의 제3대 왕으로 세우는 즉위식을 거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제사장 사독은 합법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으로 세우는 역할로, 선지자 나단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실을 알렸으며, 왕궁 수비의 직무를 맡은 브나야는 솔로몬을 보호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왕이 된것을 기뻐하였습니다.

41-53절 아도니야 일당이 모두 흩어지다

아도니야와 그 일당들이 성중에서 요란한 소리와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 솔로몬이 합법적으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도니야와 함께 있던 자들이 다 놀라서 흩어졌으며 아도니야는 두려워하여 제단 뿔을 잡고 솔로몬에게 자신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기를 원하자 솔로몬이 관용을 베풀어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적용질문

Q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며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25 금요일

다윗의 유언과 죽음

열왕기상 2:1-12

새찬송가 559장

1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4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5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6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7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래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8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므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9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10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11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사십 년이라 헤브론에서 칠 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삼십삼 년 동안 다스렸더라
12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말씀 암송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왕상2:12)

본문이해

1~9절 다윗의 유언

다윗은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않은 것을 알고 솔로몬을 불러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이 말은 개인적으로 전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선대왕으로서 후계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는 공적인 명령과 같습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의 명령,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장관이였던 요압을 처단하라고 명령합니다. 요압은 충성되고 큰 공을 세운 신하였지만 그의 잔혹하고 무죄한 피를 흘린 대가를 치루도록 지혜롭게 해결하라고 명령합니다. 또 자신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때에 도움을 준 바르실래의 가문에게는 은총을, 악독한 말로 저주한 시므이를 처단할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솔로몬의 왕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10~12절 다윗의 죽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큰 축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범죄와 불순종의 징계를 철저하게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삶은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의로운 길의 척도가 되며 훗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적용질문

Q 다윗의 유언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할 것은 무엇입니까?

26 토요일

아도니야의 죽음

열왕기상 2:13-25

새찬송가 620장

13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14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15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16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17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18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19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야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20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21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야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22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야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23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야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24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야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25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야를 쳐서 죽였더라

말씀 암송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야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왕상2:23)

본문이해

13~18절 아도니야의 요구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솔로몬의 친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아도니야는 왕위는 본래 자기의 것으로 백성들이 왕으로 삼으려 했으나 하나님의 뜻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을 어필하면서 대신 소원으로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삼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밧세바는 그 부탁을 허락하고 솔로몬에게 가서 아도니야의 청을 허락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19~25절 아도니야의 죽음

솔로몬은 크게 반발하며 아도니야를 처단합니다. 그 이유는 노년의 다윗을 수발들었던 아비삭을 취함으로 자신이 다윗의 후계자라는 근거를 만들어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숨은 계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야는 다윗에게 반역하여 왕좌에 오르려다가 다윗의 재빠른 판단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어 제단 뿔을 붙잡고 생명을 구걸한 이력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비를 베풀어 살려주었지만 아도니야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 반역을 꾀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브나야를 보내 아도니야를 처단합니다.

적용질문

Q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27 주일

아비아달의 추방과 요압의 처형

열왕기상 2:26-35

새찬송가 342장

26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27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28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야를 따랐음이더라
29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30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31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32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33 그들의 피는 영영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34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35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말씀 암송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상2:35)

본문이해

26~27절 제사장 아비아달의 파면

솔로몬 왕은 아도니야의 반역에 가담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마땅히 죽을 자이지만 다윗 시대에 공로를 생각해 죽이지 않고 제사장직에서 파면하고 고향 아나돗으로 보냅니다. 이런 솔로몬의 명령은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이 폐할 것(삼상2:27-36)이라는 예언이 엘리 가문의 후손이였던 아비아달에게 응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8~35절 군대 장관 요압의 처형

신변의 위협을 느낀 요압은 아도니야의 반역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장막의 단 뿔을 잡았습니다. 제단 뿔을 붙잡는다는 것은 범죄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용서받기 위한 행동이나 요압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함이였습니다. 솔로몬은 브나야를 보내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죄값으로 처벌을 내립니다.

적용질문

Q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까?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28
월요일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열왕기상 2:36-46

새찬송가 259장

36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37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38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9 삼 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40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41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42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43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44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45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46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말씀 암송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잠언 24장 1절)

본문이해

36-46절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곤경에 처하자 그를 쫓아가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권이 다시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는 길에 다윗에게 나와 용서를 구합니다. 당시의 정세를 고려했을 때 다윗이 자신을 죽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예상대로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시므이는 결국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유보된다고 해도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간교함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며 정도를 걸으십시오.

적용질문

Q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까?

29
화요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열왕기상 3:1-15

새찬송가 213장

1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2 그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3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4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5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6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7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8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1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4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15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말씀 암송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약 4:3)

본문이해

1-15절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신앙 생활에 있어서 기도 응답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신앙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에 응답 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 이상으로 풍성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지혜를 구하였을 때 그가 구한 지혜는 물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소망합니다.

적용질문

Q 오늘 내가 드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30 수요일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열왕기상 3:16-28

새찬송가 212장

16 그 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17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18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19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20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21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22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23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24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25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26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27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28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말씀 암송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전 1:25)

16-28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판결을 통해 솔로몬의 탁월한 신적 지혜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구에 실제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면 그 기도를 실제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기도를 통해 기도한대로 실제 응답 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Q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서 나에게 지금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제목은 무엇입니까?

31 목요일

솔로몬의 신하들

열왕기상 4:1-19

새찬송가 401장

1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2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3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4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5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6 아히살은 궁내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7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열두 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일 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8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훌이요
9 마가스와 사알빔과 벧세메스와 엘론벧하난에는 벤데겔이요
10 아룹봇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11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12 다아낙과 므깃도와 이스르엘 아래 사르단 가에 있는 벧스안 온 땅은 아힐룻의 아들 바아나가 맡았으니 벧스안에서부터 아벨므홀라에 이르고 욕느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13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육십 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14 마하나임에는 잇도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15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16 아셀과 아롯에는 후새의 아들 바아나요
17 잇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18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19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말씀 암송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고전 7:17)

본문이해

1-19절 온 이스라엘에 대한 효율적 통치

본문은 솔로몬의 행정 내각과 열두 행정 구역 분할 및 그 관장들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구역은 자기 지역의 관장과 함께 적합한 목표와 사명을 수행하면서 책임을 감당해 나갔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각각의 발전을 도모함으로 이스라엘은 중앙 정부만이 아니라 지방 구석구석까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이같은 이스라엘의 번영과 발전은 오늘날 교회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 역시 하나의 몸이지만 그 안에 여러 기능들이 지체로 존재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몸된 지체들로서 서로 협력하되 조직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일을 수행하여 나갈 때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고 지체된 성도들간에 단단한 결속을 유지하여 건강한 교회 공동체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적용질문

Q 교회의 몸된 지체들과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까?

원주중부교회 새벽 QT
매일 만나
2022. 3.

발행인 | 김미열

도운이 | 조문상 최청환
| 한성훈 안광모
| 이상호 박예일
| 김요한 송주원
| 손아론

발행처 | 원주중부교회
T : 033-744-2760 ~1,2
F : 033-744-2763
http://wjjungbu.org